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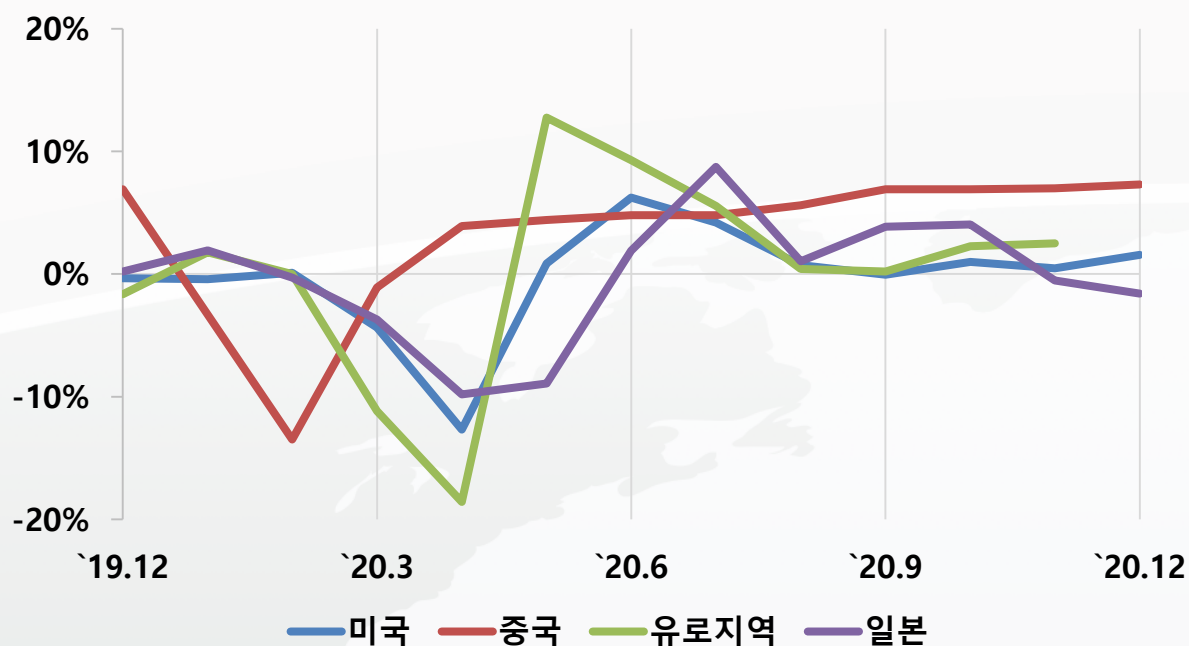
2021.1

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

■ 주요국 경제동향 : 코로나19 확산세 차이 등으로 상이한 경기회복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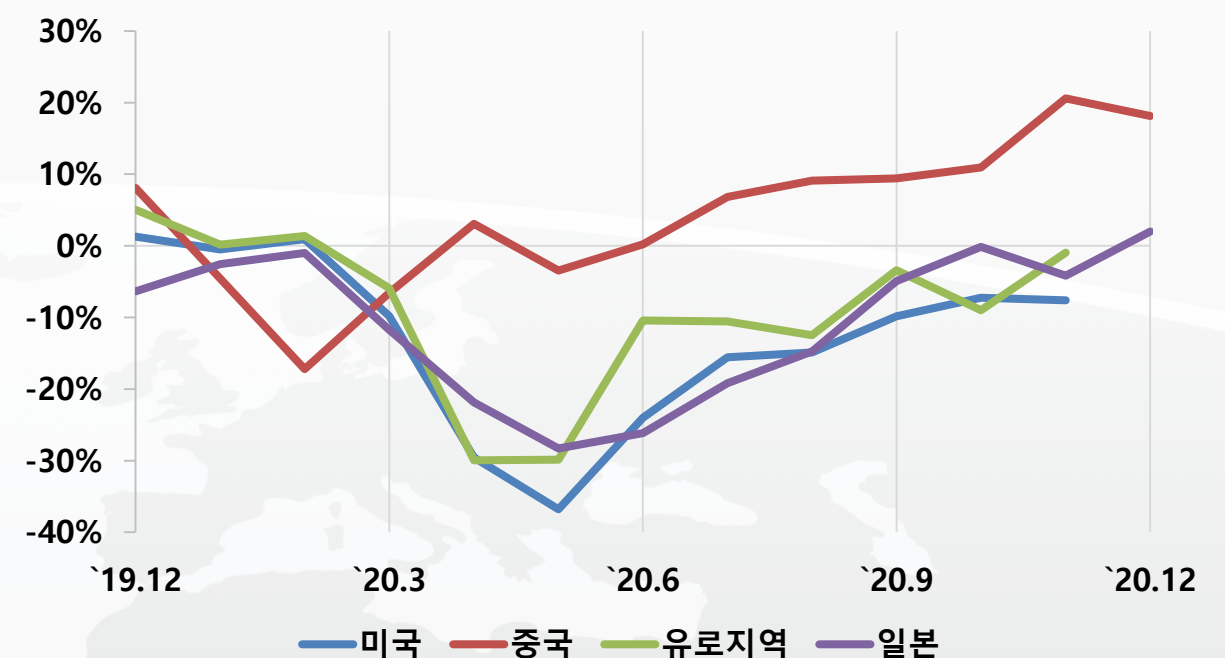
- **(미 국)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비부진 여전**
- 12월 산업생산(전월 대비 +1.6%)은 증가세가 소폭 확대된 반면, 12월 소매판매(전월 대비 $\Delta 0.7\%$)는 전월에 이어 3개월 연속 감소
- **(중 국) 생산·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 견조한 증가세 지속**
- 12월 산업생산(전년동월 대비 +7.3%)은 지난 4월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12월 수출(전년동월 대비 +18.4%)도 큰 폭 증가
- **(유로존) 코로나19 봉쇄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경기 지표 개선**
- 11월 산업생산(전월 대비 +2.5%)은 증가폭이 확대되고, 12월 합성(제조업+서비스업)PMI지수도 제조업 중심으로 상승세 전환 (45.3 → 49.1)
- **(일 본) 생산·수출 동반 악화 등, 경기 회복 모멘텀 미약**
- 12월 산업생산(전월 대비 $\Delta 1.6\%$)은 감소폭이 확대된 가운데, 12월 수출(전월 대비 $\Delta 0.1\%$)도 2개월 연속 전월 대비 감소

전산업생산지수



주 : 전월 대비, 계절조정. 중국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자료 : Bloomberg

수출 추이



주 : 전년동월 대비, 비계절조정. 중국(USD) 제외 각국 통화 기준
자료 : Bloomberg

국내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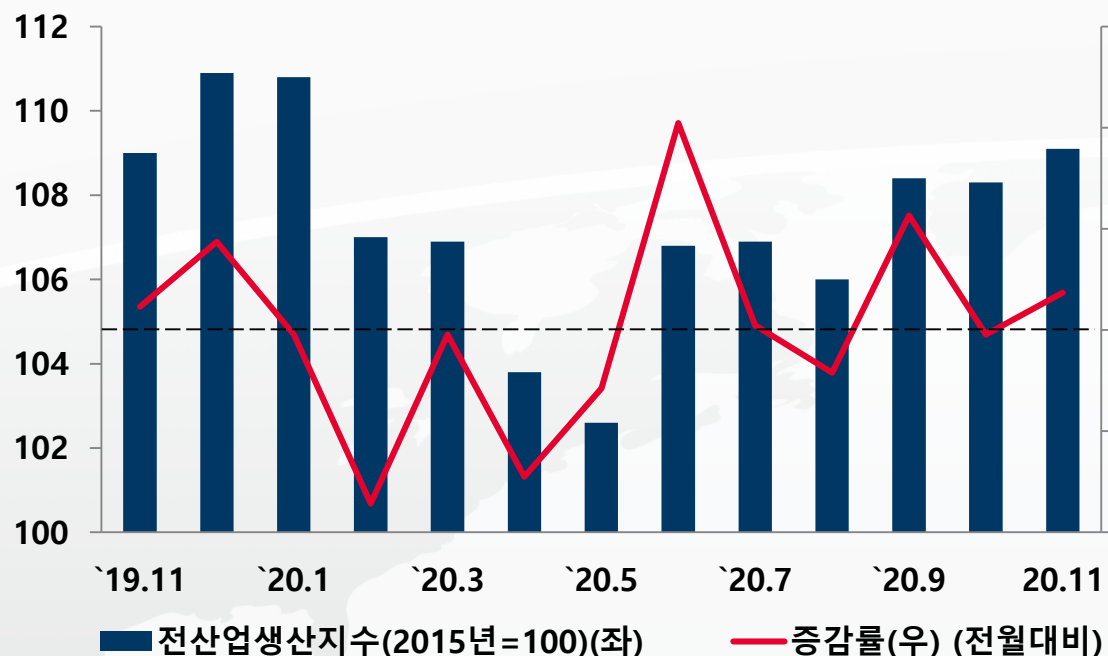
■ 산업 활동 : 실물경기 회복 전환 (11월 기준)

- (생산) 11월 전산업생산(전월 대비 +0.5%)은 광공업 및 서비스업 생산 동반 증가로 전월 대비 0.7% 증가
 - (광공업, +0.3%) : 자동차(△8.8%) 등이 감소했으나, 전자부품(+7.4%), 반도체(+7.2%) 등이 큰 폭으로 반등하며 2개월 만에 증가 전환
 - (서비스업, +0.7%) : 숙박·음식점(△2.7%) 등이 감소하였으나, 주식거래 증가에 따른 금융·보험업(+4.6%) 호조로 증가
- (경기) 11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98.8p)·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102.5p) 6개월 연속 동반 상승 (기준치 100)

■ 수출 동향 : 25개월 만에 수출액 500억 달러 돌파 ('18.11 이후 처음, 역대 6번째 실적)

- 12월 총수출·일평균 수출은 각각 514.1억 달러(전년동기 대비 +126%) 및 19.9억 달러(+7.9%)로 2개월 연속 증가하며 상승세 지속
 - 中(+3.3)·美(+11.6)·EU(+26.4)·ASEAN(+19.6) 등 4대 시장에 대한 총수출이 2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
 - 15대 품목 중 디스플레이(+28.0)·반도체(+30.0)·바이오헬스(+104.4) 등 11개 품목 증가, 석유제품(△36.5)·석유화학(△1.6)·철강(△7.8) 등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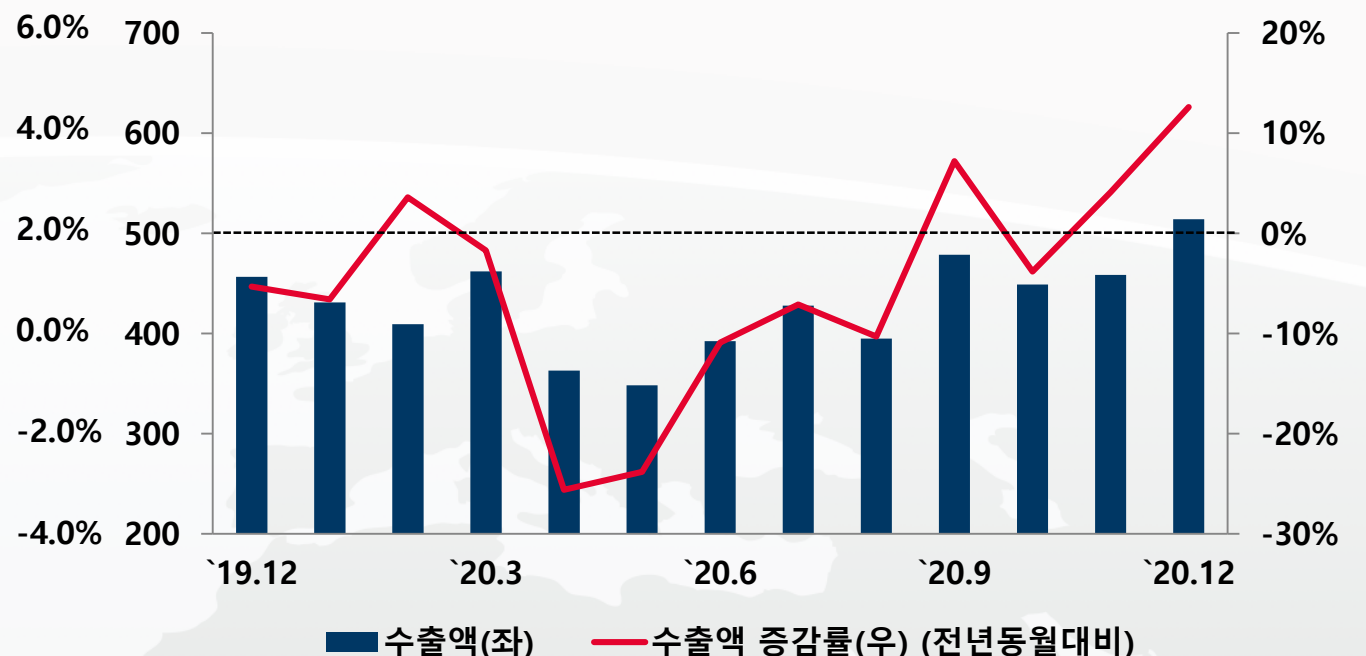
전산업생산지수(계절 조정)



자료 : 통계청

수출 추이

(억 달러)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통관기준)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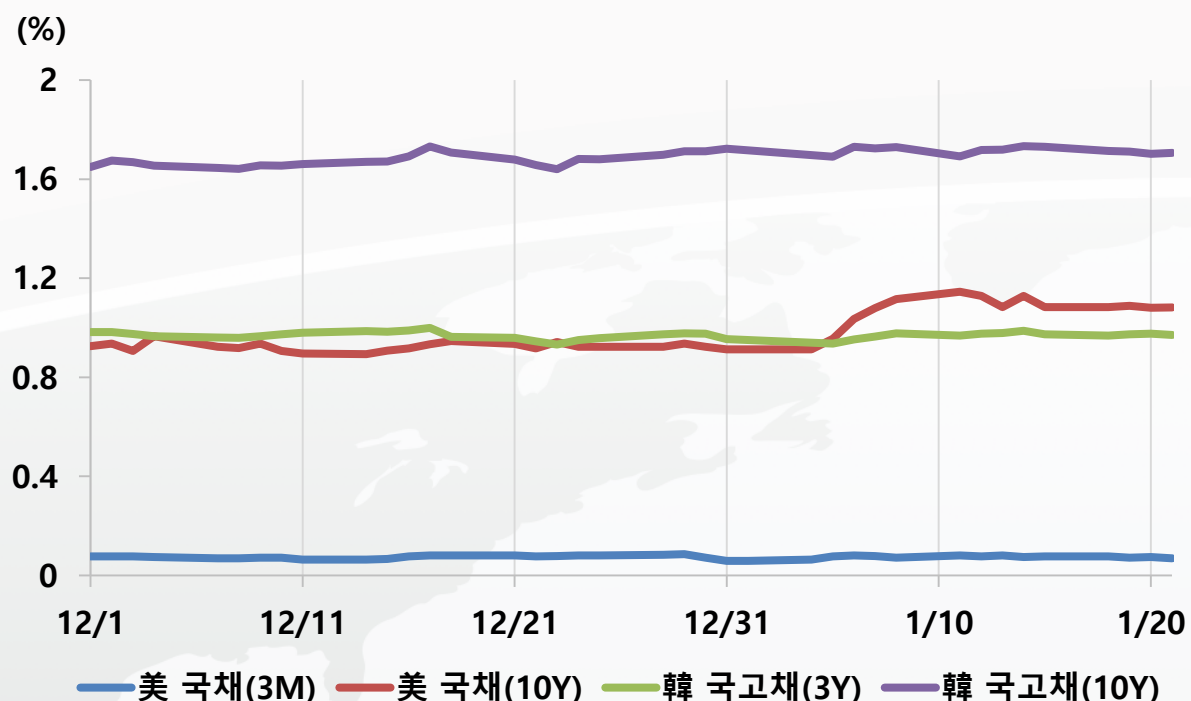
■ 금리 동향 : 경기회복 기대 · 국채 발행 우려 등으로 상승

- (미국) 연초 경기개선 기대감 및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따른 수급 부담 등으로 상승, 이후 FOMC 금리동결 시사 등으로 보합세
- (한국) 적자국채 발행 우려 · 글로벌 금리 상승 등으로 전월에 이어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
 -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20.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21.1.14, 1.734%)

■ 환율 동향 : 미 달러화,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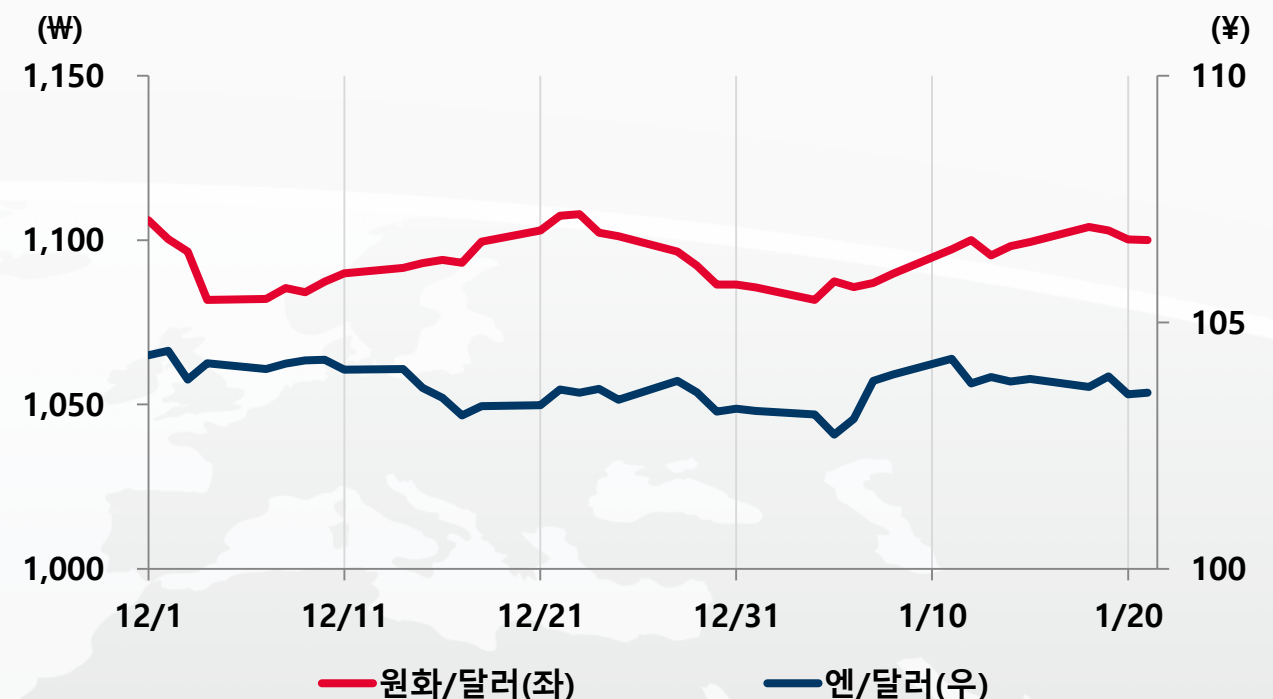
- (원/달러 환율) 지난해 연말 원화가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였으나, 이후 미국 금리 상승 등으로 환율 1,100원 수준 회복
 - 원/달러 환율(종가 기준, 원) : (1.1) 1,085.7 → (1.4) 1,081.8 → (1.11) 1,097.2 → (1.15) 1,099.4 → (1.21) 1,100.0
- (엔/달러 환율) 연초 가파른 상승 이후, 日 국제수지 흑자 발표 등 엔화강세 여건으로 소폭 하락

韓 · 美 채권 금리 추이



자료 : Bloomberg 및 금융투자협회

달러 환율(對원화, 對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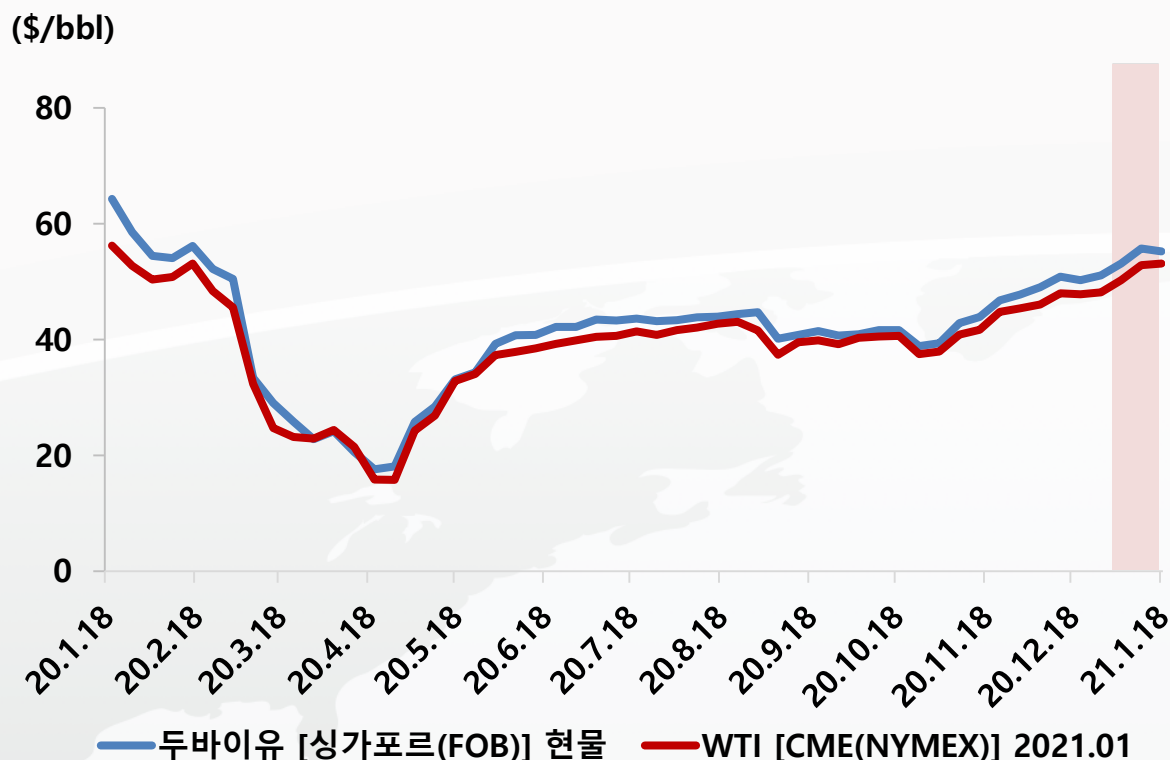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

■ 코로나 백신 기대감, OPEC+ 감산 등으로 유가 상승, 가스 가격은 2달러 중후반대 보합세 지속

- (유가) 백신기대감으로 11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유가는 OPEC+의 감산 합의에 이은 사우디의 자발적인 감산(2~3월 100만 b/d 규모) 발표로 급등하여 1월말 배럴당 50달러 중반대 기록
 - OPEC+는 감산 축소 규모를 '21.1월 720만 b/d에서 2월 712.5만 b/d, 3월 705만 b/d로 소폭 조정하는데 합의 (1.5)
 - 미국,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 중이나, 화이자, 모더나 등의 백신개발 및 접종 개시, 대규모 미국 부양책 등에 의한 석유소비 증가 기대감과 OPEC+의 감산 지속으로 유가 상승세 지속
- (천연가스 가격) 가스 재고증감 및 수요감소 우려 등에 따라 mmBtu당 2달러 중반대~후반대 보합 지속
 - 12월 중순 백신접종 기대감으로 mmBtu당 2달러 후반대를 기록했으나 예년대비 온난한 날씨 예보 등으로 12월말 mmBtu당 2달러 중반대로 하락, 1월 중순 8주 연속 재고감소세로 2달러 후반대를 회복했다가 1월말 다시 2달러 중반대로 하락

국제유가 추이



미국 천연가스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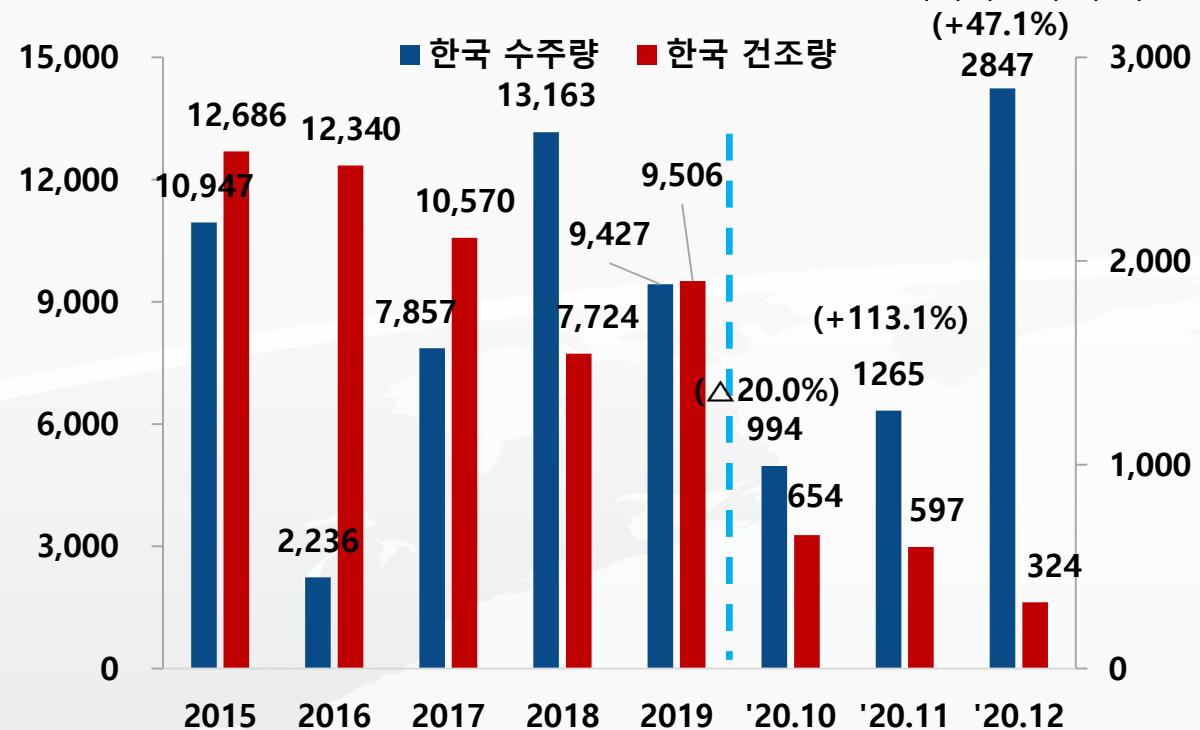
자료 : Koreapds(유가는 주간 가격, 천연가스 가격은 NYMEX 익월물 일일가격)

12월 선종별 다량 수주로 연간 수주규모 개선

- 수주는 월간 실적 기준으로 회복을 넘어 매우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으며 10월 이후 개선추세 뚜렷
 - 금년 1~12월 누적 수주량 819만CGT(전년동기 대비 Δ 16.5%), 12월은 285만CGT(전년동월 대비 47.1%)
 - 금년 1~12월 누적 수주액 182.8억 달러(전년동기 대비 Δ 19.9%), 12월은 59.7억 달러(전년동월 대비 35.1%)
 - 12월에는 LNG선, 대형 컨테이너선, 대형 유조선, LPG선 등 다양한 선종에 걸쳐 다량 수주에 성공
 - 한국 신조선 점유율은 12월 누적 42.5%로 중국(41.2%)을 넘어 가장 높은 점유율을 확보함(CGT 기준)
- 선박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나 누적 기준으로는 전년 수준에 미치지 못함
 - 금년 1~12월 누적 수출액은 197.7억 달러(전년동기 대비 Δ 2.0%), 12월은 27.8억 달러(전년동월 대비 105.9%)

한국 조선업 수주 및 건조량 추이 (천C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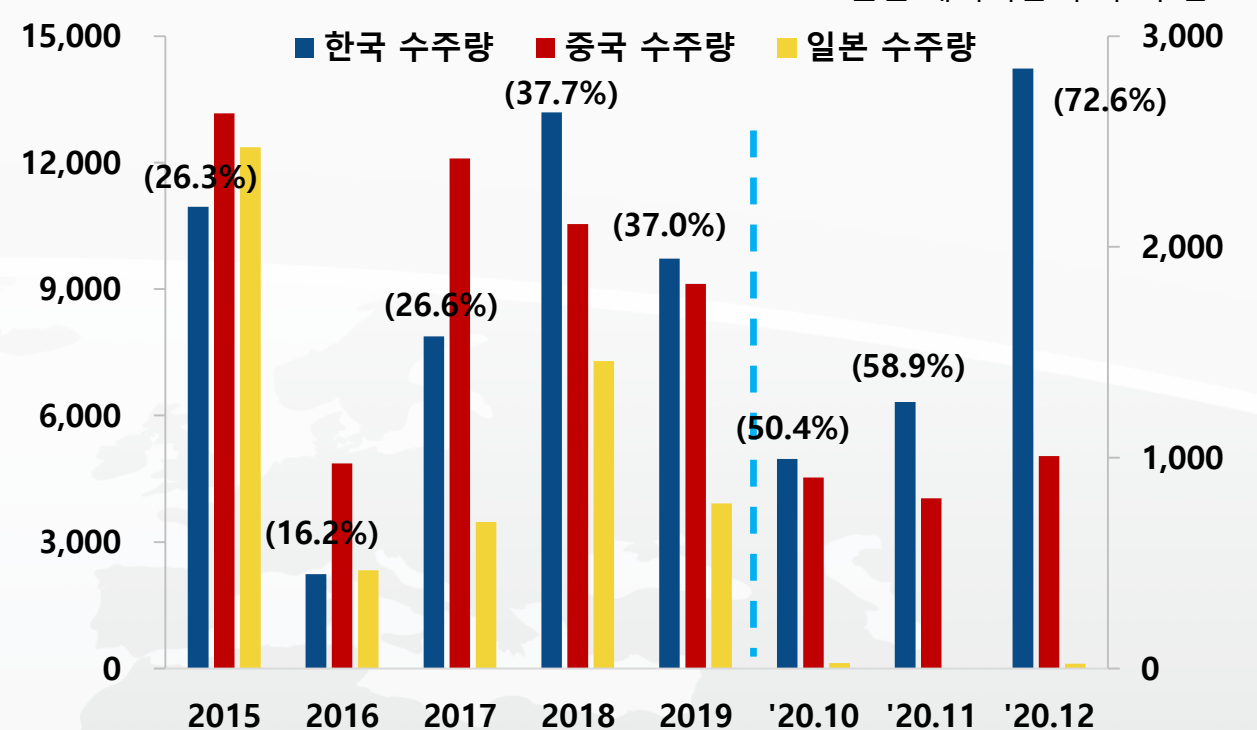
※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



주 :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수주량 증감률
자료 : Clarkson

한·중·일 수주량 및 점유율 추이 (천C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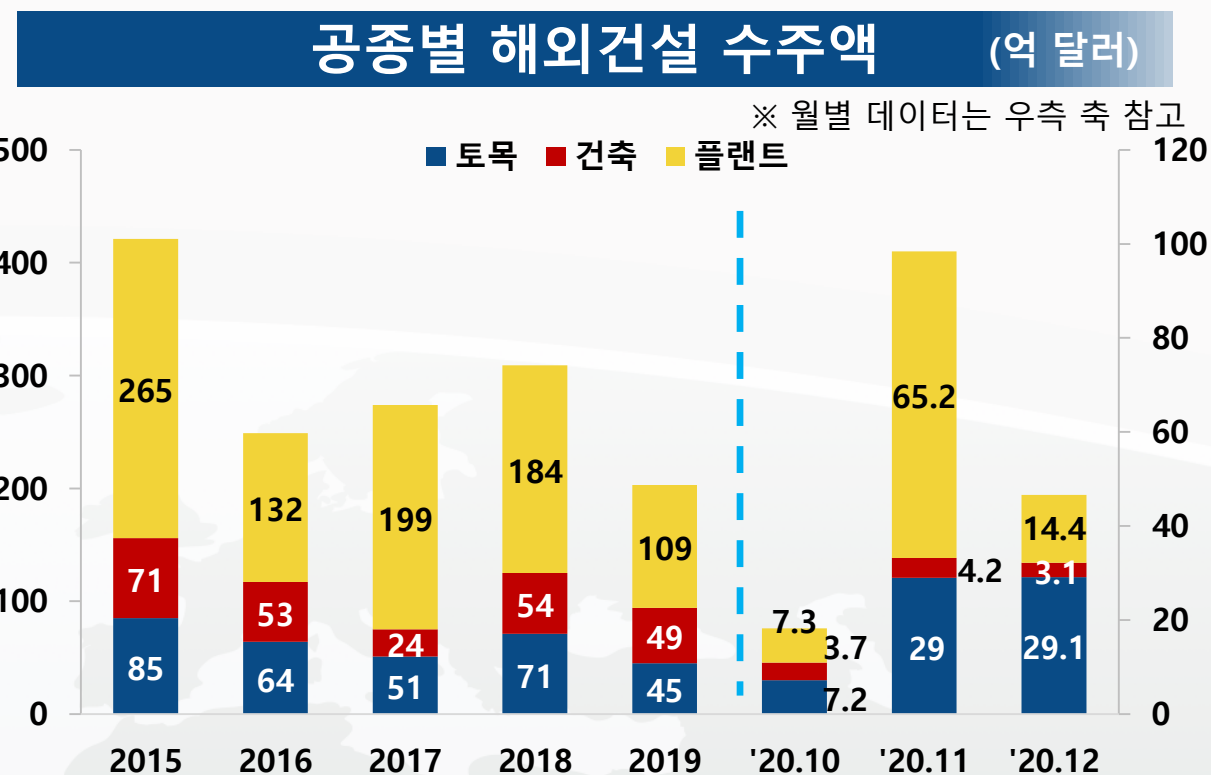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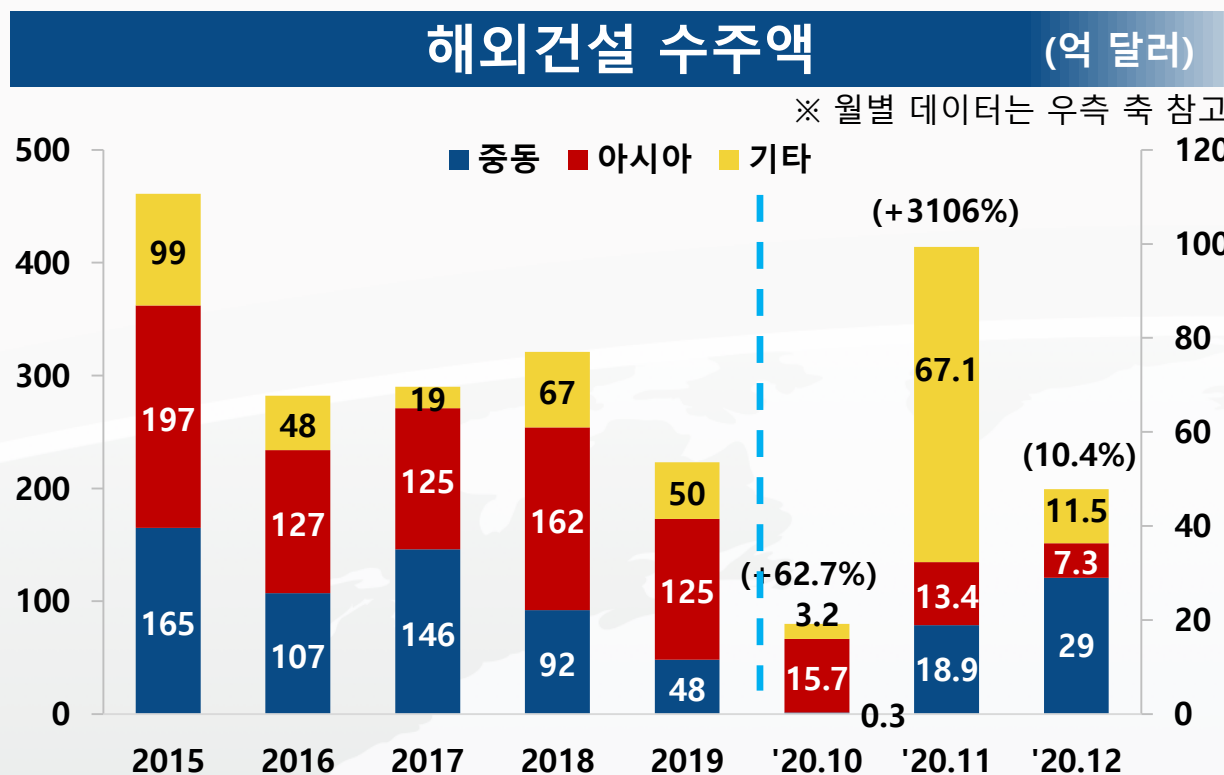
※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



주 : 괄호 안은 당월 한국 수주량 점유율
자료 :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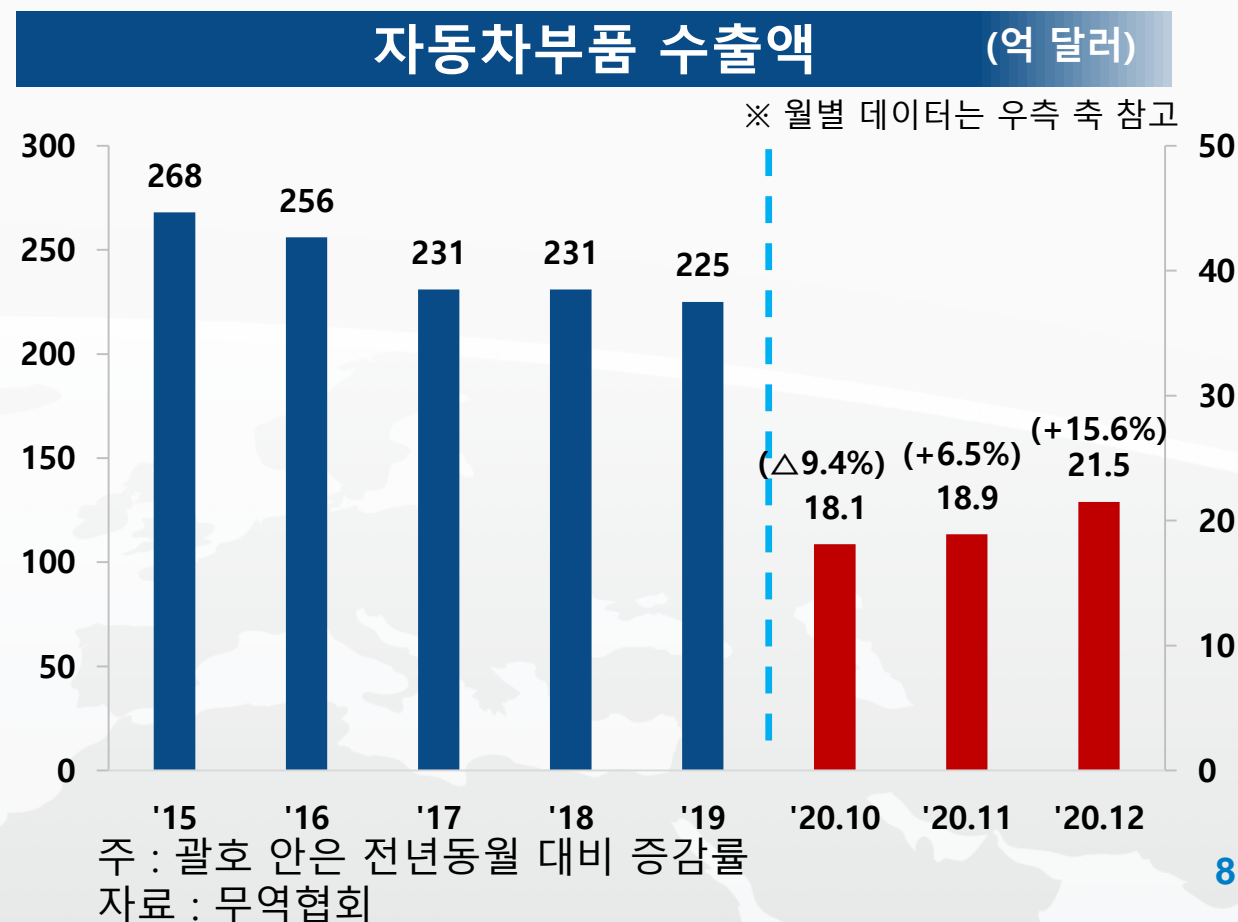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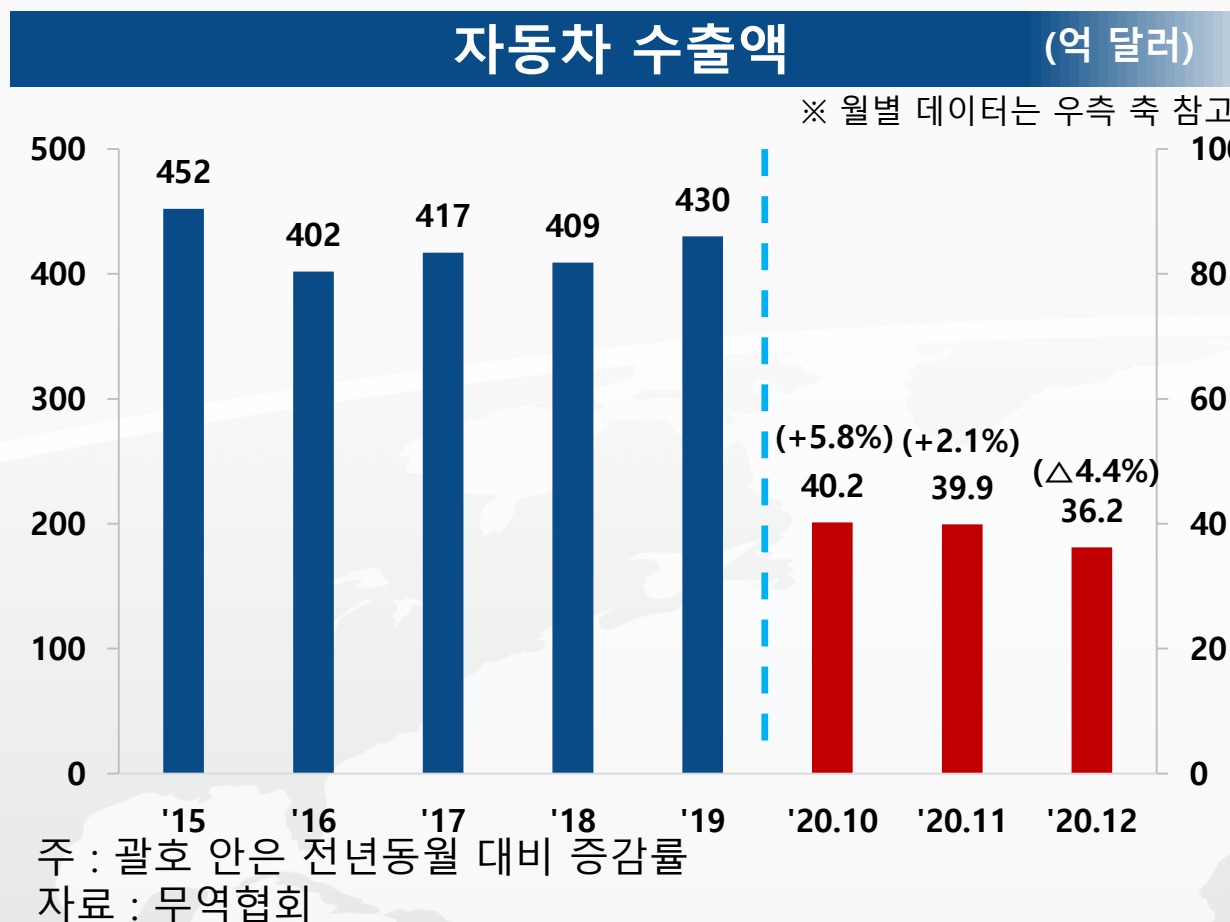
■ 12월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47.8억 달러

- 지역별 수주액은 중동의 경우 전년동월 대비 12.7배 증가한 29억 달러, 아시아는 7.3억 달러 기록
 - 코로나19 상황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던 2020년 중동 수주액은 전년 대비 179% 증가한 133억 달러 기록
- 공종별 수주액은 플랜트 14.4억 달러, 토목 29.1억 달러, 건축 3.1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전 분야 큰 폭 개선
 - 전년동월 대비 수주 증감률은 플랜트 -18.2%, 토목 223%, 건축 -74.4%를 기록
- 2020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플랜트 수주 증가로 인해 기존 예상치 300억 달러를 상회하는 351억 달러 기록
 - 멕시코 도스보카즈 정유공장(37억 달러) 및 파나마 메트로 사업(28억 달러)을 수주하면서 2020년 기존 예상치를 크게 넘어서는 성과 달성



■ 12월 자동차 및 부품수출액은 각각 36.2억 달러, 21.5억 달러를 기록

- 자동차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4.4% 감소했으며, 부품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5.6% 증가
 - 단가가 높은 SUV와 친환경자동차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미국 및 유럽의 코로나 상황 악화로 인해 전반적인 회복세 둔화
 - 자동차 부품 수출은 미국시장에서 SUV 관련 부품 수요 증가 및 러시아 등 신흥시장에서 전략 차종 판매가 선전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 2020년 자동차 및 부품 수출은 374억 달러, 186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각각 13.1%, 17.2% 감소
 - 2020년 자동차 및 부품 수출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2021년 수출은 글로벌 자동차 수요 반등 및 기저효과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12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출은 각각 전년동월 대비 29.6%, 31.3% 증가

•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9.6% 증가한 95.5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6개월 연속 증가

-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모바일·PC·서버 수요가 증가하고, 마이크론의 대만 D램 공장 정전사고(12.3)로 인한 공급 부족 우려로 선구매 수요가 발생하면서 전년동월 대비 25.2% 증가한 59.9억 달러 기록

* D램 고정거래가격(달러) : ('20.1)2.84→(2)2.88→(3)2.94→(4)3.29→(5~6)3.31→(7~9)3.13 →(10~12)2.85 (D램익스체인지)

-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등의 수요 호조로 전년동월 대비 44.8% 증가, 역대 최고 수출액 29.9억 달러 기록

•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31.3% 증가한 23.9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4개월 연속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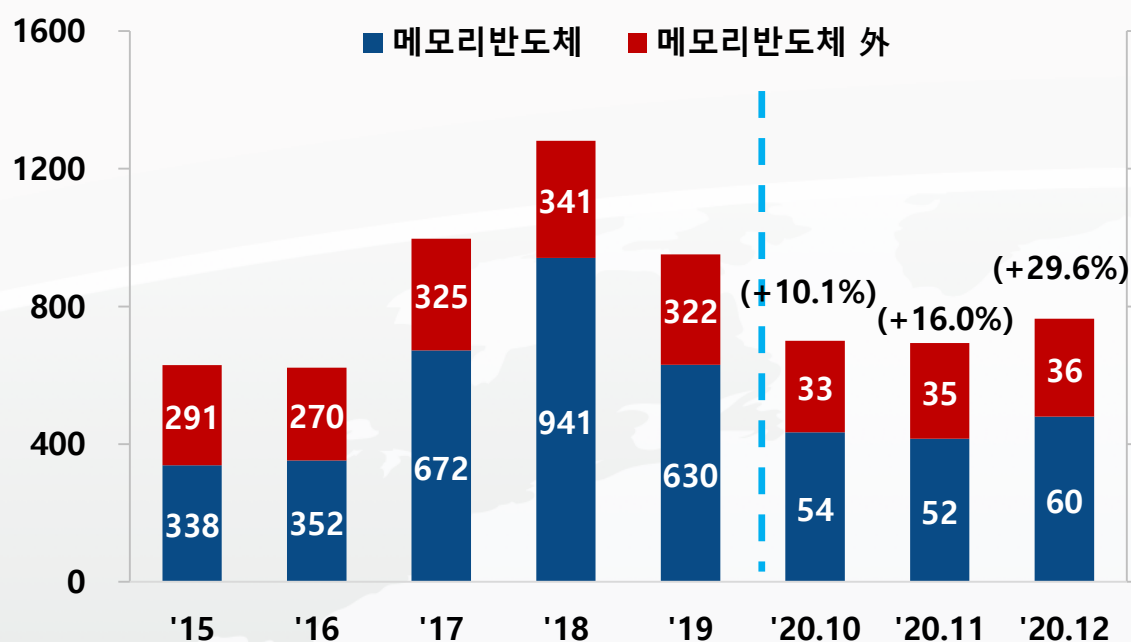
- OLED 수출은 모바일·TV 수요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46.0% 증가하면서 2020년 월 수출 최대액(14.4억 달러)을 기록
- LCD 수출은 PC·TV 등의 수요 호조, LCD 가격 상승, 주요기업의 생산 연장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3.0% 증가

*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는 2020년말 국내 LCD TV 패널 사업 철수를 추진했으나 LCD 업황 개선으로 LCD 생산 1년 연장 추진

반도체 수출액

(억 달러)

※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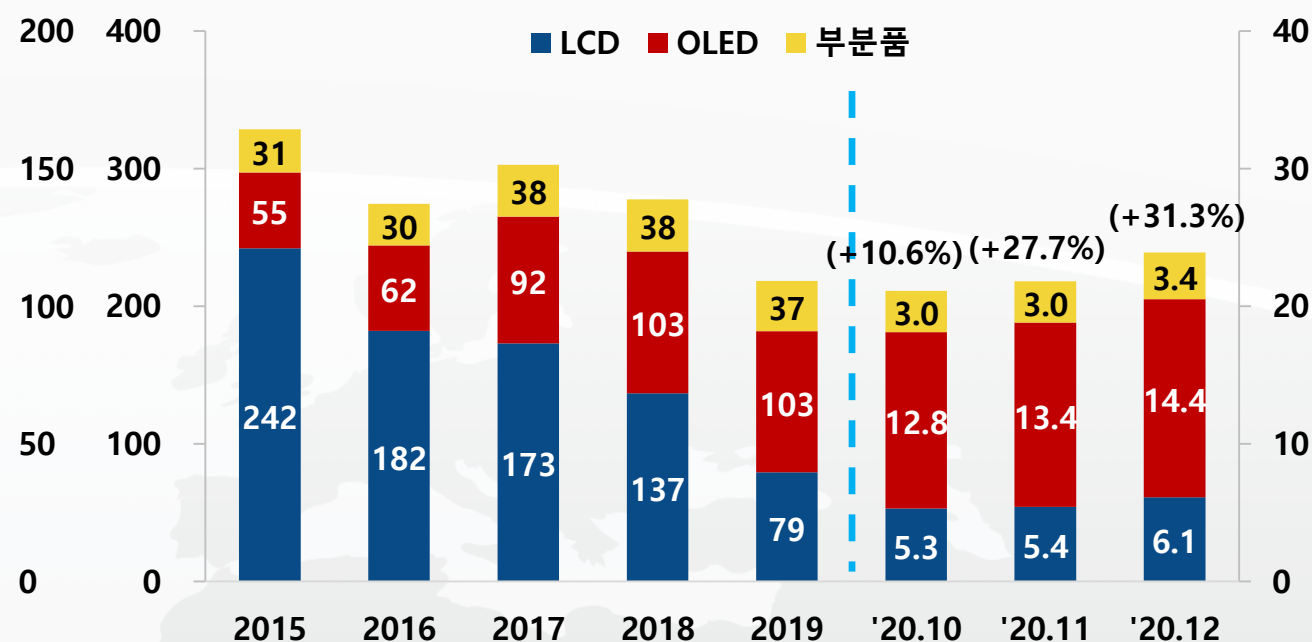


주 :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디스플레이 수출액

(억 달러)

※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



주 :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